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	보도일시	2025. 5. 22.(목) 10:00 부터
	보고서명	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
	문의	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822, bjang@kcmi.re.kr)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40, junghy0103@kcmi.re.kr)

-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2014년 7.1년에서 2024년 13.2년으로 크게 증가
 - 같은 기간 주요국의 평균 잔존만기 변동폭이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비

- 국고채 만기 장기화는 보험산업 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 증가와 초장기물 공급원이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함께 맞물린 결과
 - 새로운 회계기준(IFRS17) 및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초장기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
 - 보험사 부채는 듀레이션이 매우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필요
 -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이외 초장기물 발행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
 - 그 결과, 초장기채 수요가 국고채 위주로 형성되면서 정부는 초장기물 발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

- 현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초장기채 경과물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
 - 2030년대 중반에는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이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절대 규모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
 - 최근 3년간 만기별 발행 비중을 적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추세 등에 따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
 - 초장기채 경과물의 누증은 국고채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초장기 국고채는 비지표물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으로 인해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우려

○ 향후 국고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

— ① 초장기채 경과물의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기능 제고, ②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, ③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를 도모해야 할 것

- 유동성 관리 및 만기 분산을 위해서는 각 목적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 조기상환과 교환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채 발행 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
- 보험사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 발행 집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,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